

KC 인증 지원으로
개발제품의 완성도와 신뢰도
확보

에이엠텔레콤(주)



기업명	에이엠텔레콤(주)
대표자	여민기
홈페이지	http://www.amtel.co.kr
주요사업	5G / 5G+ / IoT / 전장 모듈 / 디바이스 전문 회사 엣지 AI / Cloud Platform 솔루션
설립일	2001년 5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아탑리더스빌딩 608호

에이엠텔레콤(주)은 국내 IoT 모듈 1위 공급업체로 5G/LTE 통신제품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는 '무선통신분야 강소기업'이다. 2001년 5월 설립되어 약 23년간 통신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에이엠텔레콤(주)은 퀄컴 Full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3개(삼성, LG, 에이엠텔레콤(주)) 기업 중 하나로, 퀄컴 솔루션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

주요 사업분야로 IoT 모듈 및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연간 약 150만 개를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3G, 4G, 5G 80여 종의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USB 동글, 라우터 등의 통신용 디바이스를 개발해 국내 통신 3사(SKT, KT, LGU+), 일본 통신사(KDDI, Docomo, Softbank), 인도의 JIO 등에 공급하고 있다.

또 다른 사업분야로 재난안전통신망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무전기형 특수 단말기를 개발해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국가철도시설공단, 해양수산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재난망 단말기, 차량형 거치대, 고정형 거치대 등 다양한 액세서리가 있고, 해양 송수신기를 개발 및 공급해 국내 선박의 안전도 책임지고 있다.

세 번째 사업분야는 전장사업으로, 커넥티드카용 통신 모듈과 디바이스(NAD, TCU, Navi Box, T-Box 등)를 개발하며, 주요 고객으로는 Ford, Toyota, PSA, 현대모비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와 AI 사업 분야를 추가해 다양한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 5G 분야에 있어서도 삼성전자와 협력해 국산 5G 칩셋인 삼성 엑시노스 칩셋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5G 모듈, 개발용 키트 및 라우터를 개발했으며, 이를 활용해 국내 최초 이음 5G(특화망) 인증을 획득했다. 2022년에는 Rel 16을 지원하며 LTE/5G FR1(Sub-6)/FR2(mmWave) 주파수를 지원하는 모듈과 라우터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이음 5G 28GHz mmWave 인증을 획득했다.

TTA로부터 지원받은 사항

인증 표준	KC 인증 획득
지원 금액	천 5백만 원 지원

중소기업이면 모두 겪는 힘든 시기, TTA와 헤쳐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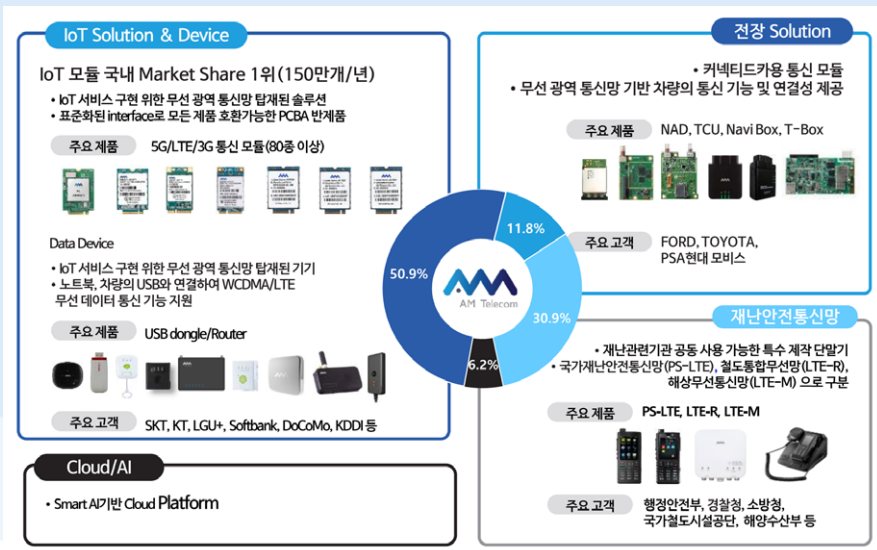
에이엠텔레콤(주)은 통신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하드웨어의 RF-3GPP 3G, 4G, 5G와 관련된 모듈 및 디바이스를 개발해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RF 유선/무선 안테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베이스밴드 분야에 있어서는 MCU, PMIC, WiFi, BT, Audio 등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웹캠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전장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품질 기준과 개발 프로세스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이엠텔레콤(주)은 ICT 표준활용 관련하여 재난 안전 통신망 특수 단말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PG902 TTA 표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타사 제품과의 호환성을 보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통신용 소형 송수신기 제품 또한 PG903 TTA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이다.

표준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TTA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에이엠텔레콤(주)은 TTA와 기존 국책과제 사업에서 함께 과제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TTA에서 보유한 시험장비를 활용한 경험도 있다. 협력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접한 에이엠텔레콤(주)은 기회가 닿는 대로 표준활용지원서비스에 지원했다.

에이엠텔레콤(주)이 지원한 ICT 표준 활용지원서비스는 시험인증이다. 통신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품 개발과 해외 공급에 나서려면 RF 시험과 인증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5G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LTE 대비 비싼 장비 가격 때문에 인증업체에서도 높은 인증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5G 모듈 및 디바이스의 매출은 미미하다는 점이 고민이었다. 그러함에도 미래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만 했으나, 다행히 ICT 표준 활용지원 서비스를 알게 되어 시험비와 인증비를 지원받았다고 한다.

ICT 표준활용 지원서비스(시험인증)에 선정된 후 회사 내부적으로는 시험과 인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개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최신 기술을 적용할수록 고가의 시험장비 사용이 필수적인 만큼, 이러한 장비 활용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에이엠텔레콤(주)은 ICT 표준 활용지원 서비스 덕분에 이러한 부담을 줄여 좀 더 높은 제품 개발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인기관의 성적서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



기가 되기도 했다. 실질적인 지원을 얻은 경험으로 TTA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이다.

비전과 기술을 지닌 기업에 꼭 맞는 표준활용지원 서비스

에이엠텔레콤(주)은 ICT 표준활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업 추진에 크게 탄력이 붙었다고 한다. 또한 국내 유일의 표준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는 안정감과 자부심도 큰 힘이 됐다. 여민기 대표는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와 비전을 갖고 있으나 현재 매출과 연결되지 않거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신 기술일수록 시험소와 인증소를 활용하려면 비용과 리소스 투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게 적극 추천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에이엠텔레콤(주)은 현재 5G 상용망/특화망 관련 시험과 인증을 모두 획득했고, 국내외 디바이스 제조사와의 자체적인 디바이스 개발에 이를 활용 중이다. 아직 국내 5G 디바이스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본과 해외 고객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음5G 분야에서는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5G 모듈과 디바이스에 대한 요청이 있고, 상용망 분야에서도 점차 고객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사업적으로 잘 활용하여 매출로 연결할 계획이다. 